

# 경쟁사 선전하는데 1억 달러 손실

## 투자자들 '식스 플래그' 사기 의혹 조사



여름 시즌 부진과 1억 달러 손실 이후, 식스 플래그 투자자들이 테마파크 운영사에 대한 사기 의혹 조사를 시작했다.

LA에 본사를 둔 살로렘은 식스 플래그가 허위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성명을 발표했거나 투자자들

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회사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직후 제기됐다. 식스 플래그는 2분기에 1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리처드 짐머만 최고경영자가 올해 말 사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모닝브루에 따르면 연초 대비 주가가 47% 하락했다.

이 회사의 위기는 방문객 감소에서도 나타났다. 2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140만 명의 방문객이 줄었다. 반면 경쟁사들은 같은 시기 선전했다. 디즈니는 최근 분기 미국 내 테마파크 매출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유니버설은 70억 달러를 투자한 신규 테마파크 '에픽 유니버스'를 개장했다.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식스 플래그는 메릴랜드주 소재 한 놀이공원을 폐쇄하고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초 오하이오주 샌더스키에 위치한 시더 포인트로 유명한 시더 페어를 인수한 이후에도 수백 명의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을 이어갔다.

# 학부모 68%, 자녀 새 학기 준비 지출 압박

## 학용품 이외 활동비·학비·기부금까지 부담 커져

많은 학부모들이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용품 구입을 넘어 활동비와 돌봄 비용까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후와 유고브가 성인 1,7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모의 68%가 선택적으로 보이는 새 학기 지출과 활동에 압박을 느낀다고 답했다. 학부모 4명 중 1명(28%)은 500달러 이상을 쓸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75%는 100달러 이상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수업 준비물 목록을 채우는 수준을 넘어선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비, 방과후 돌봄비, 학비 및 각종 기부금까지 감당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새 학기 준비의 주체는 여전히 엄마들이다. 응답 여성의 63%가 '주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36%에 그쳤다. 일부 아버지들이 서류 작성, 병원 예약, 방과후 활동 등록 등을 맡기도 하지만, 실제 쇼핑은 대부분 엄마들의 몫이다.

부모가 느끼는 가장 큰 압박 요인은 아이들이었다. 응답자의 68%가 자녀들 때문에 예산을 초과 지출하게 된다고 답했다. 실제로 17%의 학부모는 올해 신학기 지출 때문에 신용카드 빚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새 학기 쇼핑 시즌은 해마다 더 빨리 찾아온다. 독립기념일 직후인 7월 초에 이미 대형 문구점에서 신학기 세일을 시작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미국소매연맹(NRF)은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정이 올해 평균 858달러를 의류, 신발, 학용품, 전자제품 구입에 쓸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874달러)보다 소폭 줄었지만, 무역관세 불확실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54%의 학부모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



려한다고 답했고, 이에 따라 아마존 프라이م 데이, 타깃, 월마트 세일 등 여름 대형 할인 행사에서 미리 학용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었다. 일부 주(19개 주)는 7-8월 사이 세금 없는 신학기 쇼핑 주간을 운영하며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최근 일부 학교들은 학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부모회(PTA)가 일괄 구매 후 기부금을 받는 방식으로 학용품을 준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난으로 부모에게 더 많은 기부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다. 캘리포니아 더블린의 한 학부모는 "모든 단체와 프로그램에 기부하려면 연초에만 1,500~2,000달러가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새 학기 지출에서 학용품은 빚산의 일각이다. 학부모들은 청소년 스포츠 리그 참가비, 방과후 프로그램 등록비, 다양한 기부금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수백 달러로 끝날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수천 달러가 필요하다.

부모들은 모두 "자신이 자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새 학기 지출은 훨씬 크다"고 입을 모았다. 야후/유고브 조사에서도 64%가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배경에는 인플레이션과 관세, 학교 재정난, 그리고 자녀 활동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등이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뾰족한 해법은 없다고 말한다. 그저 신용카드 빚에 빠지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고, 아이들과 기대치를 조율하며, '견디는 수밖에 없는 시즌'이라는 것이다.

사진=shutterstock



# 얼굴까지 생각하는 치아교정



## <진료과목>

- 소아 1차 교정
- 인비절라인
- 부정교합
- 안면 비대칭
- 돌출입
- 미니스크류 교정
- 무턱, 주걱턱
- 양악수술 교정

## UCLA 출신 교정전문사의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교정으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만족스러운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무료상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 Peter J Lee, DDS, MS



- UCLA 치과대학 교정전문과 과정수료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 Externship 수료
- UCLA 치과대학 졸업
- UCLA 구강생물학 석사
- 미국 교정치과협회 정회원
- 캘리포니아 교정치과협회 정회원
- 미국 치과협회 정회원
- 캘리포니아 치과협회 정회원
- 국제 교정치과 연맹 정회원

# 디자인 교정치과

# 714.389.1032

4940 Irvine Blvd. #107, Irvine, CA 92620

얼바인(본원) 시온마켓 몰안

West Covina  
626.960.0970

Diamond Bar  
909.861.8996

La Palma / Buena Park  
714.670.0023